

오순절 후 열두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2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8월 1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43 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새 20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3 번 시편(Psalm) 15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야고보서 (James) 4:1-10	이윤선 집사
찬 양 Anthem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대
설 교 Sermon	“신앙을 삶으로 (8) – 하나님께 순복하라” (Living out Your Faith – Submit Yourself to Go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93 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새 35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좇으며,

죄악 가운데 힘없이 무너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죄악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 55:6, 엡 4: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글개역 **약4:7**)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NIV **James 4: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15 (주일)	8/16 (월)	8/17 (화)	8/18 (수)	8/19 (목)	8/20 (금)	8/21 (토)
본문	삼상5,6 롬5 렘44 시19	삼상7,8 롬6 렘45 시20,21	삼상9 롬7 렘46 시22	삼상10 롬8 렘47 시23,24	삼상11 롬9 렘48 시25	삼상12 롬10 렘49 시26,27	삼상13 롬11 렘50 시28,29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8/18수 오후7:30)	“주 안에서 자랑할찌니라” (고후10:1-18)
토요 새벽기도회(8/21토 오전6:30)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48:1-14)

지난 주일(8/8) 말씀

신앙을 삶으로 (7) – “위로부터의 지혜” (약 3:13-18)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서는, (먼저) '위로부터의 지혜'와 대조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심지어는) 마귀적인 지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는지? 그것이 (혹시) 독한 시기(그릇된 열심)나, 다툼(경쟁심)인지? 를 먼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지혜'는 항상 1)지혜의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통해, 그리고 2)선행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위로부터의 지혜'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성격을,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주는데,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갈5:22-23)에서 언급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한꺼번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는 것이며, 거기에는 더 이상 편벽(편견)이나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위로부터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더해져야, 우리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모든 악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한 영적 평형감과 영적 방향감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위로부터의 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